

이 몸 삼기실 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 
흔싱 緣연分분이며 하늘 모를 일이런가  
나 하나 점어 닛고 님 하나 날 괴시니  
이 믿음 이 사랑 견줄 디 노여 업다  
평平生싱애 願원하요디 혼디 네자 하얏더니  
늑거야 무슨 일로 외오 두고 글이논고  
엇그제 님을 뵈셔 廣광寒한殿년에 올났더니  
그 더디 엇디하야 下하界계에 느려오니  
올 적의 비슨 머리 얼키연 디 三삼年년이라  
연脂지粉분 잇님논 놀 위하야 고이 흘고  
믿음의 미친 설음 疊疊疊疊이 빠져 이셔  
짓느니 한숨이오 디느니 눈물이라  
人人心심은 有有限하하디 시름도 그지업다